

## ‘업계 이익을 생각하며 항상 신제품 구상’

인체에 무해한 식품포장지 개발로 환경에 대응

### 인체에 무해한 포장지 개발

“큰 상을 받아 기쁩니다. 포장업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주최한 우수포장 개발 성공사례 공업포장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건일화학(주)(대표 김현중)의 김원보 차장은 큰 일을 한 것도 없는데라며 수상을 겸손해 했다.

건일화학이 대상을 차지한 식품포장지는 기존의 PE코팅지 및 알루미늄 호일의 포장법을 개선하여 발수, 내유, 내수처리를 함으로써 종이의 특성인 기공도를 살렸으며, 오븐 및 전자레인지 사용할시 더운 공기에 의한 액화현상으로 햄버거나 치킨 등 식품이 눅눅해지는 현상을 완전 해결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였다.

이번에 선보인 식품포장지의 특징은 사용후 폐기시 자연분해가 이루어지며, 생산작업 공정이 간단하여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고 기름, 물 등이 침투되지 않아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하여 식품업계는 물론 가정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 및 재활용성이 높은 우수한 제품으로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년전부터 개발에 들어가 신소재 식품포장지를 개발한 김원보 차장은 “연구과정에서 자금부족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개발후에도 홍보 부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부천시 지역 중심의 공급에서 탈피하여 봉고차에 제품을 싣고 서

울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친 결과 수요업체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주문이 늘기 시작했다.

내수시장에서 신상품으로 비교적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일화학은 식품포장지의 외국시장 진출을 겨냥하여 일본에 샘플을 보내 시장성을 타진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국적회사의 제품포장에 적용시키기로 확정되어 동남아 등지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가정용과 수퍼용 등 용도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안에 용도별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으로 생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김차장은 신제품의 지속적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 철저한 분석으로 상담나서

김원보 차장은 79년부터 연포장업계에 발을 들여놓고 관리, 구매, 영업 등의 업무를 익혔는데 특히 구매분야에서는 8년여를 근무하면서 구매자들의 마음을 파악하여 영업활동을 벌였다.

“제품을 정확하게 알고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열심히 뛰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그동안 김 차장이 대처해 온 방법을 밝혔다.

“직원들은 한 달에 두 번 회식을 합니다. 미혼자들에게는 통장을 만들어 관리해 주고 일을 하는데 목표를 설정,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도 해주지요”

특히 “건일화학 종업원들은 평균 10년이상 근

▶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제품개발에 임한다는  
 김원보 차장



무할 정도로 근무처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작업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번 수상은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해 준 결과로 생각합니다.”라며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최근 연포장업체가 난립돼 있어 인쇄비를 비롯한 작업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제품의 개발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 시장질서가 확립돼야 합니다.”라며 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했다.

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특화분야에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등의 횡포도 적지않은데 도를 벗어난 행동을 삼가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김 차장이 바라는 일이다.

“현재 이 분야는 고급인력이 적어 업계발전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 모두가 자기발전과 기술진보를 위해 자기개발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라며 포장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포장산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해 업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 지난날이 생각한다”며 “앞

으로 이 업계를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김 차장은 일이 좋아 일에 매달리다 보니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남들처럼 취미생활을 즐겨보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잘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즐겁고 보람이 있습니다.”라는 김 차장은 욕심을 내지 않고 도를 벗어나는 일은 어느 것도 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와 함께 또다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오 선 진 기자